



- 배포일시 : 2009. 5. 4. 10:00
-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
- 과 장 : 김 동 회(042-481-2359)
- 주 무 관 : 김 기 홍(042-481-2273)

▷ 이 자료는 2009년 5월 5일(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9 청소년 통계

2009. 5

- 최근 우리사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 (인구,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문화여가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통계청에서는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 2002년 이후 여덟 번째로 청소년 관련 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09 청소년통계』를 청소년의 달에 맞추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차 례

I. 인구와 가족	1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1
1.2. 학령인구	2
1.3.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	3
1.4. 다문화 청소년 현황	4
1.5. 청소년의 혼인	5
II. 교육	6
2.1. 방과 후 학교, 교재, 어학연수 실태	6
2.2.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7
III. 노동	8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8
3.2.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자 현황	9
3.3.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10
3.4.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시 소요기간	11
3.5.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12
IV. 보건	13
4.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13
4.2. 청소년 사망원인	14
4.3. 중·고등학생 흡연율	15
4.4. 청소년의 최초 음주시기	16
4.5. 청소년의 음주량	17
4.6.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	18
V. 복지	19
5.1.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19
5.2. 청소년 상담 현황	20
5.3. 청소년의 스트레스	21

VI. 교통과 정보화	22
6.1. 인터넷 이용빈도 및 주평균 이용시간	22
6.2. 인터넷 쇼핑 이용여부 및 월평균 구매 비용	23
6.3. 이동전화 이용여부 및 용도	24
VII. 문화와 여가	25
7.1. 블로그 운영 및 이용여부	25
7.2. 청소년 영화관람 현황	26
VIII. 안전	27
8.1. 청소년 교통사고	27
8.2. 아동학대 현황	28
8.3.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	29
8.4.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30

2009 청소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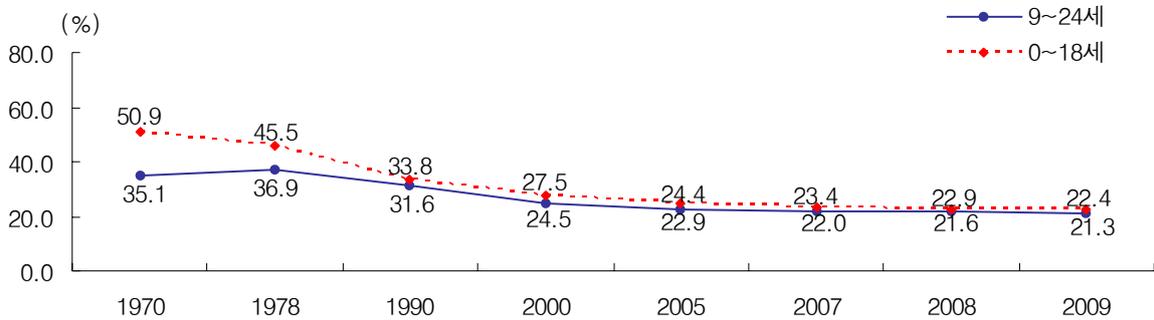
I. 인구와 가족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청소년(9~24세)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2009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8,747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0.3%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9~24세)는 10,385천명으로 1.0% 감소
 - 이는 1980년 초반이후 급격히 감소한 출생아수의 영향으로, 향후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9~24세 인구구성비는 1978년 36.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청소년 인구구성비 >



<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단위 : 천명, %)

	총인구	9~24세	0~18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70	32,241	11,330	35.1	16,419	50.9
1978	36,969	13,647	36.9	16,832	45.5
1990	42,869	13,553	31.6	14,489	33.8
2000	47,008	11,501	24.5	12,904	27.5
2005	48,138	11,028	22.9	11,729	24.4
2008	48,607	10,494	21.6	11,120	22.9
2009	48,747	10,385	21.3	10,902	22.4
증감률 ¹⁾	0.3	-1.0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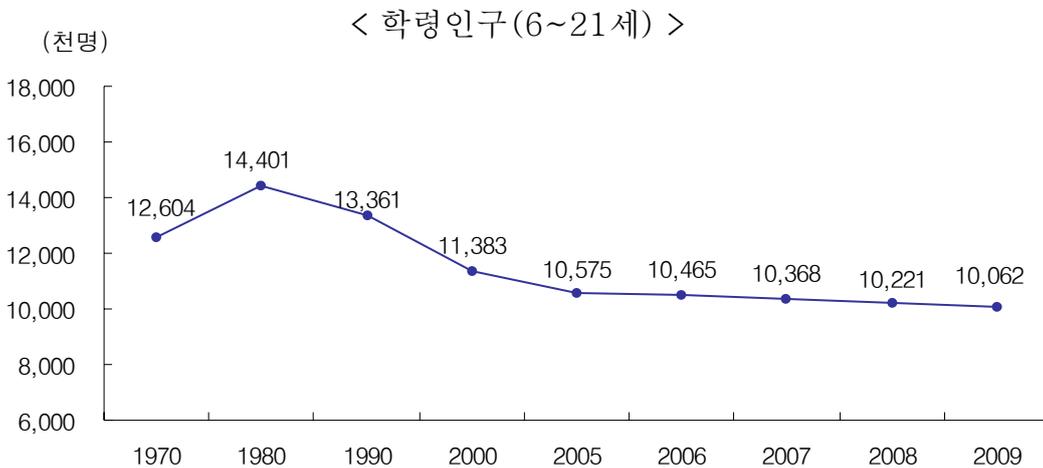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주 : 1)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비율

1-2. 학령인구

2009년 학령인구(6~21세)는 10,062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2009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10,06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6%(159천명) 감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4.9%, 2.2%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각각 1.7%, 1.3% 증가
-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14,401천명)에 비해 30.1%(4,339천명) 감소한 것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 학령인구 >

(단위 : 천명)

	계 (6~21세)	학령인구(천명)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	10,575	4,016	2,058	1,864	2,637
2008	10,221	3,643	2,071	2,032	2,475
2009	10,062	3,464	2,025	2,067	2,506
증감률 ¹⁾	-1.6	-4.9	-2.2	1.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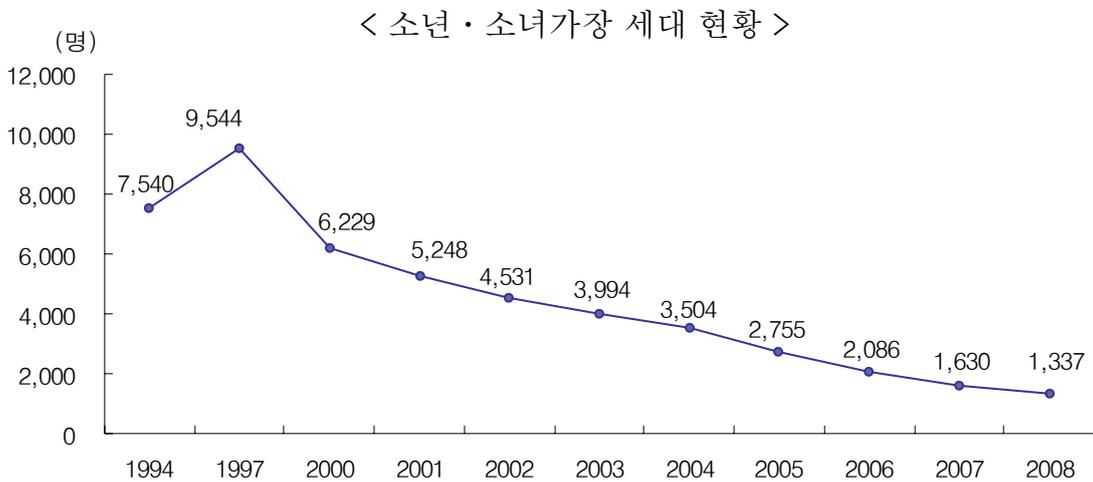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주 : 1)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비율

1-3.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

2008년 소년·소녀가장은 총 1,337세대로 1997년(9,544세대) 이후 계속 감소

- 2008년 소년·소녀가장은 총 1,337세대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은 2,058명이고, 재학상태별로는 미취학 12명(0.6%), 초등학교 292명(14.2%), 중학교 621명(30.2%), 고등학교 1,059명(51.5%), 기타 74(3.6%)임
- 전년(1,630세대)에 비해 18.0%(293세대)가 감소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가장 많았던 1997년(9,544세대)에 비해 86.0%(8,207세대) 감소하였음



<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 >

(단위 : 명)

	세대주	세대원 ¹⁾	재학상태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²⁾
1997	9,544	16,547	174	2,830	5,382	5,516	2,645
2000	6,229	9,579	121	1,862	3,217	4,041	338
2002	4,531	6,947	115	1,478	2,232	2,936	186
2004	3,504	5,444	87	1,244	1,681	2,331	101
2005	2,755	4,332	85	901	1,343	1,923	80
2006	2,086	3,271	39	572	1,031	1,570	59
2007	1,630	2,501	25	401	789	1,226	60
2008	1,337	2,058	12	292	621	1,059	74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세대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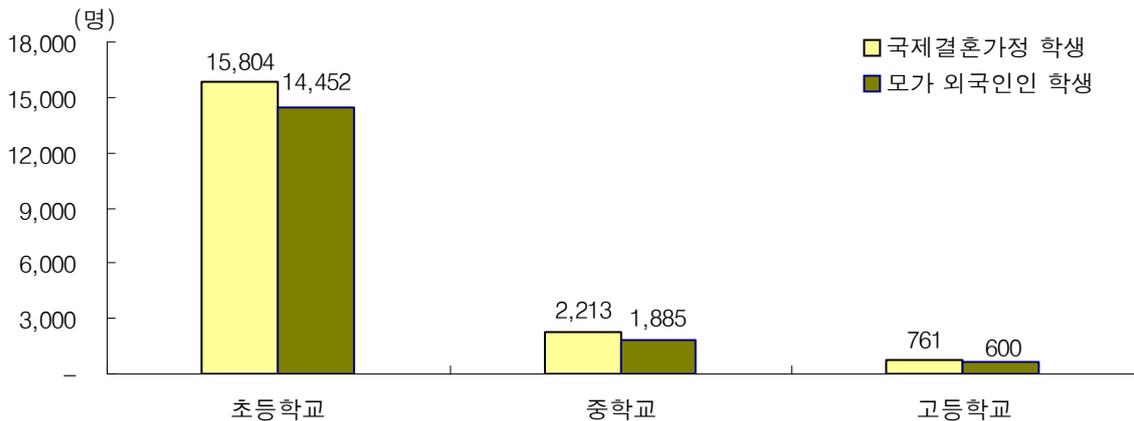
2) 미재학자, 고교재학자 및 대학재학자 포함

1-4.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8년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 및 이 중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는 전년(2007년)에 비해 각각 39.7%, 43.2% 증가

- 2008년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18,778명으로 전년에 비해 39.7% 증가
 - 이 중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도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43.2% 증가
 - 학교급별 증가율은 고등학생이 84.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중학생(39.4%), 초등학생(38.1%) 순임
-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16,937명으로 국제결혼가정의 90.2%를 차지하고 있음

< 다문화 청소년 현황(2008년) >



< 다문화 청소년 현황 >

(단위 : 명, %)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05	6,121	5,332	583	206	-	-	-	-
2006	7,998	6,795	924	279	6,695	5,854	682	159
2007	13,445	1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2008	18,778	15,804	2,213	761	16,937	14,452	1,885	600
증감률 ¹⁾	39.7	38.1	39.4	84.3	43.2	39.1	59.5	1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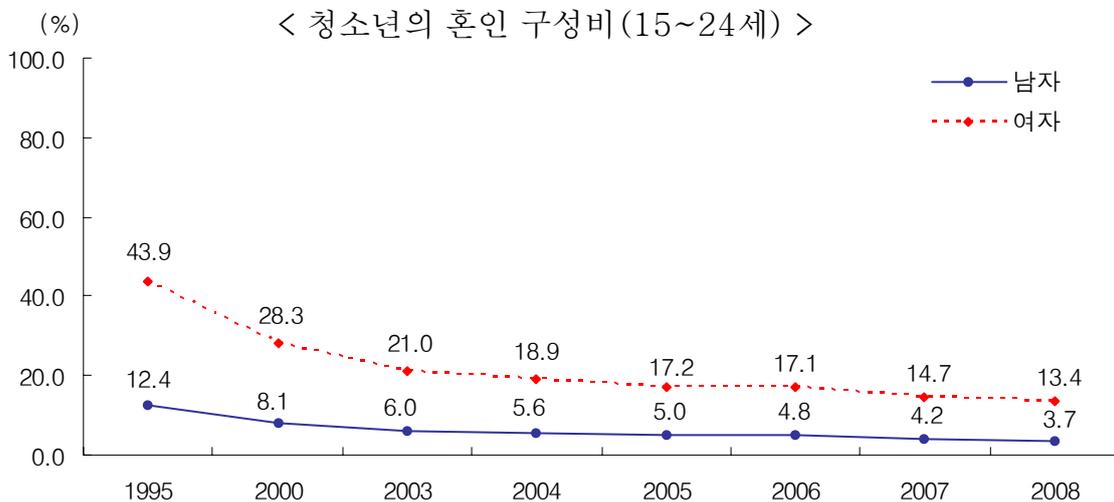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주 : 1)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률

1-5. 청소년의 혼인

만혼 추세로 인해 총 혼인건수에서 청소년(24세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08년 24세 이하 인구의 남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3%, 3.4%, 여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2.0%, 11.4% 임
- 전년대비 남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3.9%에서 3.4%로 0.5%p, 여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12.9%에서 11.4%로 1.5%p 감소하였음



< 청소년의 혼인 구성비 >

(단위 : 건, %)

	총 혼인	남자		여자	
		15~19세	20~24세	15~19세	20~24세
1995	398,484	0.7	11.7	3.3	40.6
2000	332,090	0.6	7.5	2.5	25.8
2004	308,598	0.4	5.2	1.6	17.3
2005	314,304	0.3	4.7	1.8	15.4
2006	330,634	0.3	4.5	2.3	14.8
2007	343,559	0.3	3.9	1.8	12.9
2008	327,715	0.3	3.4	2.0	11.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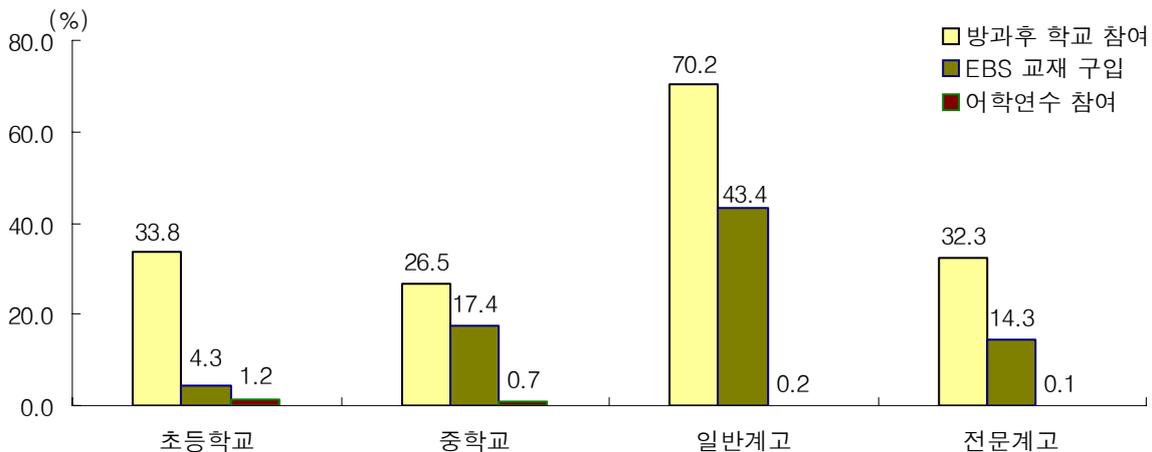
II. 교육

2-1. 방과 후 학교, 교재, 어학연수 실태

2008년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비율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70.2%로 가장 높음

- 학교급별로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70.2% 가장 높고, 초등학교(33.8%), 중학교(26.5%)순으로 나타남
- 2008년 학생 1인당 월평균 EBS 교재 구입비는 2천원, 구입비율은 16.0% 임
 - 일반계 고등학생의 구입비율이 43.4%로 가장 높으며, 중학교(17.4%), 전문계고(14.3%) 순으로 나타남
- 어학연수 참여율은 낮은 편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2%로 가장 높음

< 방과 후 학교, 교재, 어학연수 실태(2008년) >



< 방과 후 학교, 교재, 어학연수 실태(2008년) >

(단위 : %, 만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참여율	비용 ¹⁾								
방과 후 학교 참여 ²⁾	38.7	1.1	33.8	1.0	26.5	0.4	70.2	2.2	32.3	0.8
EBS 교재 구입	16.0	0.2	4.3	0.0	17.4	0.1	43.4	0.5	14.3	0.1
어학 연수 참여 ³⁾	0.8	0.6	1.2	0.8	0.7	0.5	0.2	0.2	0.1	0.2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조사」 2008년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임

2) 방과 후 학교에는 초등방과 후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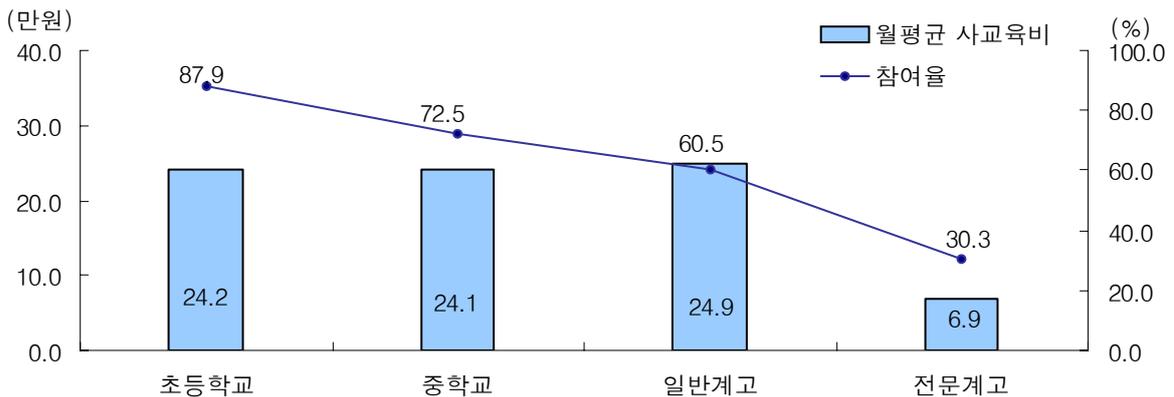
3) 어학연수에는 국내와 해외 모두 포함됨

2-2.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8년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전년에 비해 1.9%p 감소

- 2008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5.1%이며, 전년(77.0%)에 비해 1.9%p 감소하였음
 - 초등학생이 87.9%로 가장 높으며, 중학생(72.5%), 일반계 고등학생(60.5%), 전문계 고등학생(30.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광역시(90.3%)에서 가장 높으며,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생은 서울(각각 75.9%, 73.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용은 전년에 비해 1만1천원 증가한 23만 3천원이며, 일반계 고등학생이 24만 9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2008년) >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

(단위 : %, 만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참여율	비용 ¹⁾								
2007	77.0	22.2	88.8	22.7	74.6	23.4	62.0	24.0	33.7	6.7
2008	75.1	23.3	87.9	24.2	72.5	24.1	60.5	24.9	30.3	6.9
증 감 ²⁾	-1.9	1.1	-0.9	1.5	-2.1	0.7	-1.5	0.9	-3.4	0.2
서울	79.1	29.6	89.4	27.2	75.9	31.5	73.6	37.5	21.7	5.3
광역시	76.6	22.8	90.3	25.2	74.9	23.7	60.1	21.1	35.3	6.2
중소도시	75.8	24.2	88.7	25.9	73.1	24.3	60.7	24.8	27.3	7.1
읍면지역	64.0	12.5	79.2	13.9	59.8	13.3	32.2	8.3	35.3	8.7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조사」 각년도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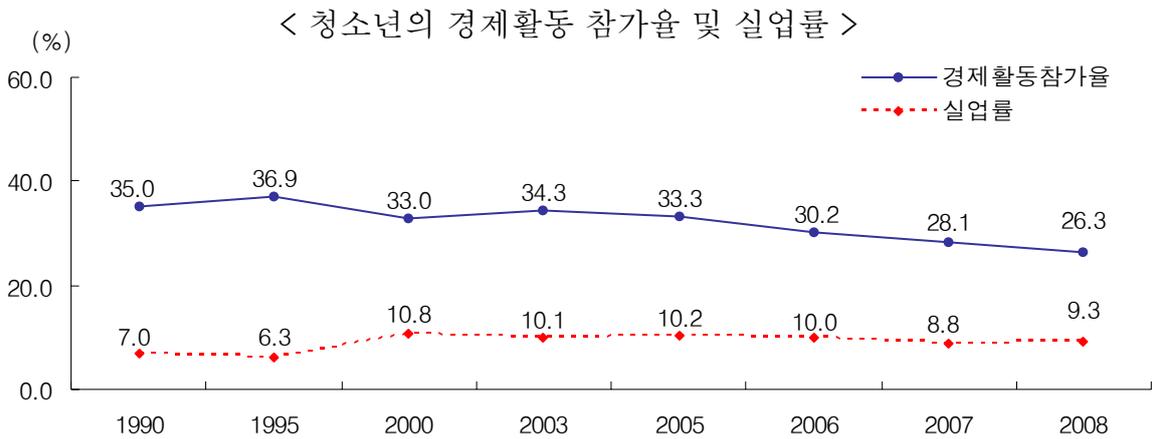
2)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

Ⅲ. 노동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2008년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3%, 실업률은 9.3% 임

- 2008년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3%이며, 전년(28.1%)에 비해 1.8%p 감소
 - 연령대별로는 15~19세는 6.5%, 20~24세는 50.1%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는 전년에 비해 각각 7.5%, 1.4% 감소
- 2008년 청소년(15~24세)의 실업률은 2007년에 비해 0.5%p 증가하여 9.3%이며, 이중 15~19세는 10.2%, 20~24세는 9.2%임



< 청소년의 경제활동¹⁾ >

(단위 : 천명, %)

	계 ²⁾	경제활동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인구	취업자	실업자			
1990	7,577	2,649	2,464	185	4,928	35.0	7.0
2000	6,960	2,298	2,049	249	4,662	33.0	10.8
2005	6,113	2,034	1,826	208	4,079	33.3	10.2
2007	5,937	1,671	1,524	147	4,266	28.1	8.8
2008	5,919	1,554	1,410	145	4,365	26.3	9.3
15~19세	3,238	212	190	22	3,026	6.5	10.2
20~24세	2,681	1,343	1,220	123	1,339	50.1	9.2
증감률 ³⁾	-0.3	-7.0	-7.5	-1.4	2.3	-1.8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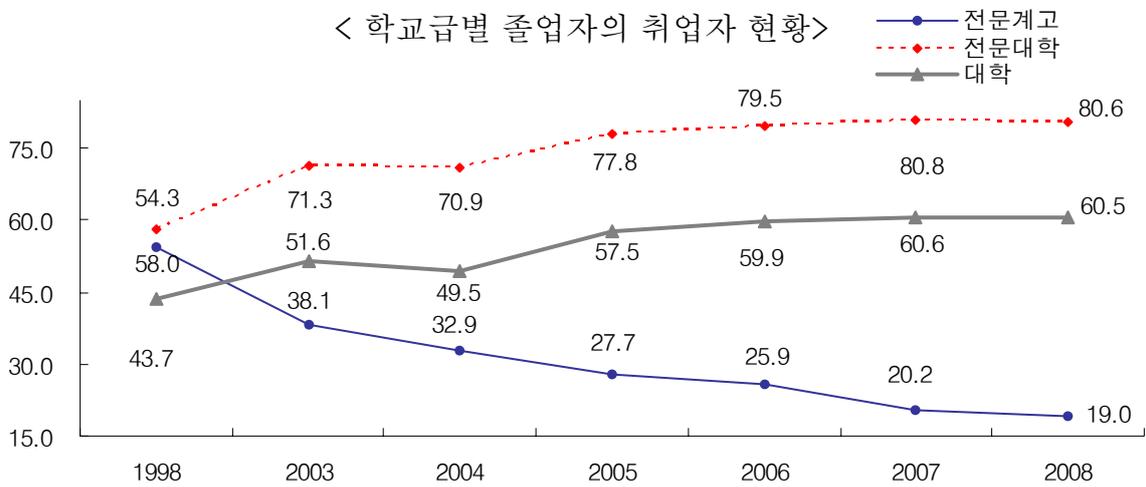
주 : 1) 2000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기준,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기준으로 작성

2) 15~24세 대상, 3)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률

3-2.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자¹⁾ 현황

2008년 각 학교급별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학이 80.6%로 가장 높음

- 2008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자 비율이 80.6%로 가장 높음
 - 전문계고는 19.0%로 지속적으로 감소세
 - 전문대학 및 대학은 81%와 61%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10년전(1998년)과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자 비율은 35.3%p 감소하였으며, 전문대학과 대학은 각각 22.6%p, 16.8%p 증가하였음



< 학교급별 취업자¹⁾ 현황 >

(단위 : 명, %)

	1998		2006		2007		2008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 전문계고 >								
졸업자	302,416	100.0	162,600	100.0	158,708	100.0	158,408	100.0
취업자	164,075	54.3	42,151	25.9	32,075	20.2	30,036	19.0
< 전문대학 >								
졸업자	196,551	100.0	222,973	100.0	215,040	100.0	207,741	100.0
취업자	114,035	58.0	177,364	79.5	173,804	80.8	167,526	80.6
< 대 학 >								
졸업자	196,566	100.0	270,546	100.0	277,858	100.0	282,670	100.0
취업자	85,805	43.7	162,174	59.9	168,254	60.6	170,878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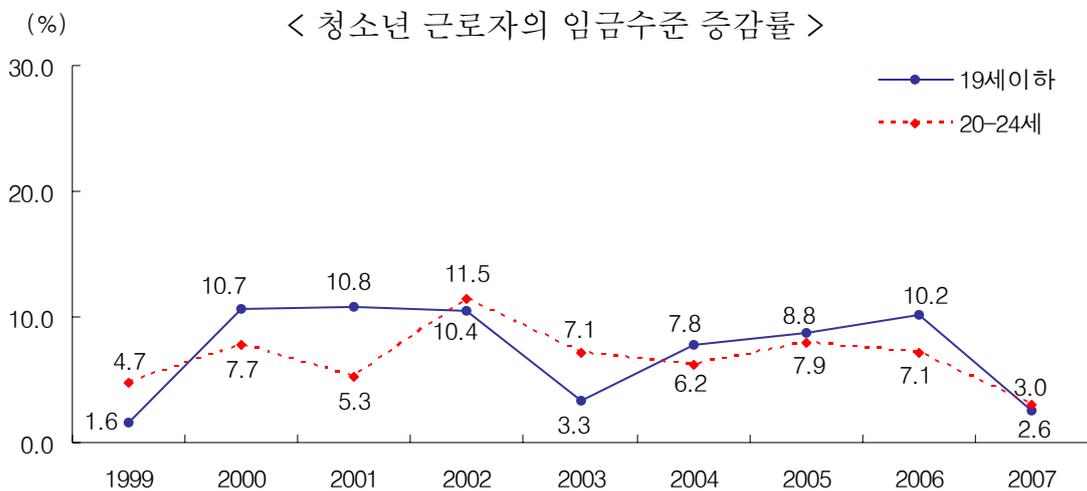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취업자 : 순수 취업자(진학자, 입대자 제외)

3-3.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2007년 청소년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9세 이하는 119만 7천원, 20~24세는 132만 4천원임**

- 2007년 19세 이하 청소년의 월 평균임금은 119만 7천원, 20~24세는 132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임금상승률은 각각 2.6%, 3.0%
- 20~24세의 경우 고졸이하 129만 4천원, 전문대졸 130만 4천원, 대졸이상의 경우 145만 1천원으로, 대졸이상의 임금수준이 전문대졸 임금수준보다 1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단위 : 천원, %)

구 분	임금수준 ¹⁾					증감률				
	19세 이하	20~24세			대졸 이상	19세 이하	20~24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2001	792	877	868	869	994	10.8	5.3	4.6	5.6	8.4
2002	874	978	970	945	1,112	10.4	11.5	11.8	8.7	11.8
2003	903	1,047	1,029	1,018	1,200	3.3	7.1	6.1	7.7	7.9
2004	973	1,112	1,095	1,098	1,218	7.8	6.2	6.4	7.9	1.5
2005	1,059	1,200	1,174	1,190	1,306	8.8	7.9	7.2	8.4	7.2
2006	1,167	1,285	1,262	1,255	1,416	10.2	7.1	7.5	5.5	8.4
2007	1,197	1,324	1,294	1,304	1,451	2.6	3.0	2.5	3.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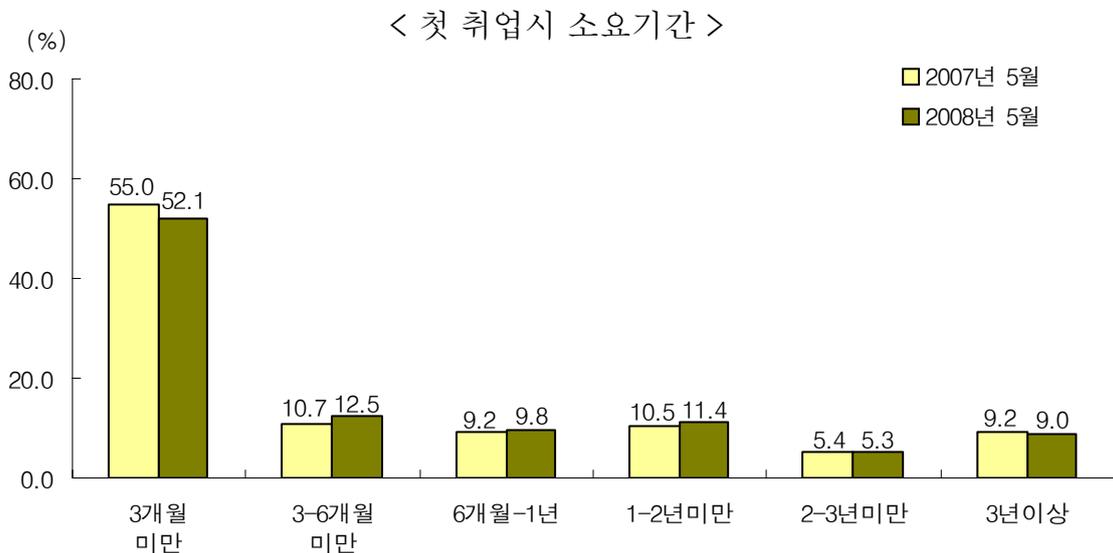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매년 6월 기준의 정액 및 초과급여임(특별급여는 제외)

3-4.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시 소요기간

2008년 청년층(15~29세)이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임

- 2008년 임금근로 형태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가 졸업/중퇴 이후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2.1%로 가장 많았고, 첫 취업에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9.0%로 나타났음
- 졸업/중퇴 후 1년 이내에 취업한 자의 비중은 74.4%로 2007년(74.9%)에 비해 0.5%p 감소하였고, 첫 취업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로 2007년과 동일함



< 첫 취업시 소요기간 >

(단위 : 천명, %)

연도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기간
			(천명)	(천명)	(천명)	(천명)	(천명)	(천명)	
2006	4,695	4,530	2,425	520	419	465	239	463	12개월
		(100.0)	(53.5)	(11.5)	(9.2)	(10.3)	(5.3)	(10.2)	
2007	4,603	4,449	2,446	478	407	469	241	408	11개월
		(100.0)	(55.0)	(10.7)	(9.2)	(10.5)	(5.4)	(9.2)	
2008	4,513	4,383	2,281	549	429	499	232	393	11개월
		(100.0)	(52.1)	(12.5)	(9.8)	(11.4)	(5.3)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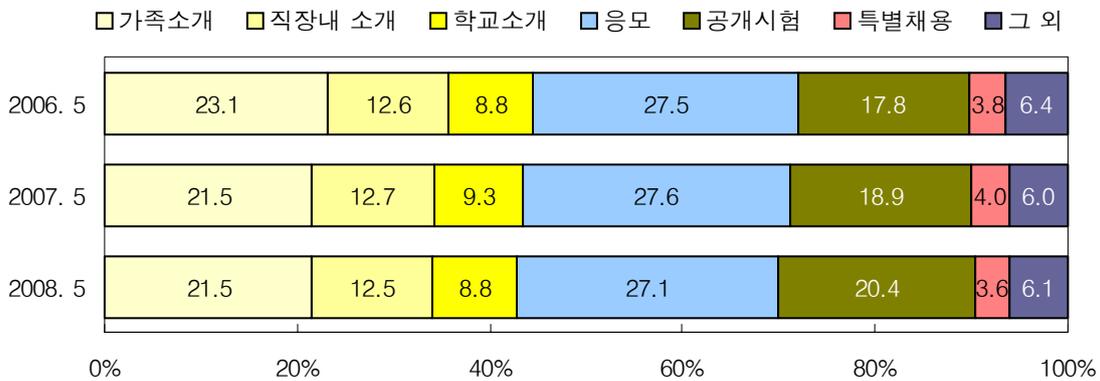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각년도
 - 조사대상 :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대상

3-5.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2008년 청년층의 취업경로는 소개나 추천(42.8%)에 의한 취업이 가장 많음

- 2008년 청년층 취업자(15~29세)의 주된 취업경로는 소개나 추천(42.8%)에 의한 취업으로 이중 가족/친지의 소개나 추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27.1%), 공개시험(20.4%) 순으로 나타났음
- 교육정도별 취업경로를 보면, 고졸이하는 소개나 추천(55.4%)과 신문/잡지 등의 응모(31.4%)가 높았으며, 대학졸업 이상도 소개나 추천(36.0%)이 가장 높지만, 공개시험(28.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취업경로 >



<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취업경로 >

(단위 : 천명, %)

연도	취업자	소개·추천			학교(학 원)선생님 추천	신문/잡지 /인터넷 등 응모	공개 시험	특별 채용	그 외 ¹⁾
		소개· 추천	가족/친지 소개(추천)	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2006	3,618 (100.0)	1,609 (44.5)	837 (23.1)	454 (12.6)	318 (8.8)	994 (27.5)	645 (17.8)	138 (3.8)	232 (6.4)
2007	3,537 (100.0)	1,538 (43.5)	761 (21.5)	449 (12.7)	328 (9.3)	976 (27.6)	669 (18.9)	141 (4.0)	213 (6.0)
2008	3,471 (100.0)	1,486 (42.8)	747 (21.5)	433 (12.5)	306 (8.8)	942 (27.1)	707 (20.4)	124 (3.6)	213 (6.1)
고졸이하	1,203 (100.0)	668 (55.4)	379 (31.5)	203 (16.8)	86 (7.1)	378 (31.4)	60 (5.0)	21 (1.7)	78 (6.5)
대졸이상	2,268 (100.0)	818 (36.0)	368 (16.2)	230 (10.1)	220 (9.7)	565 (24.9)	647 (28.5)	104 (4.6)	135 (5.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각년도

- 조사대상 :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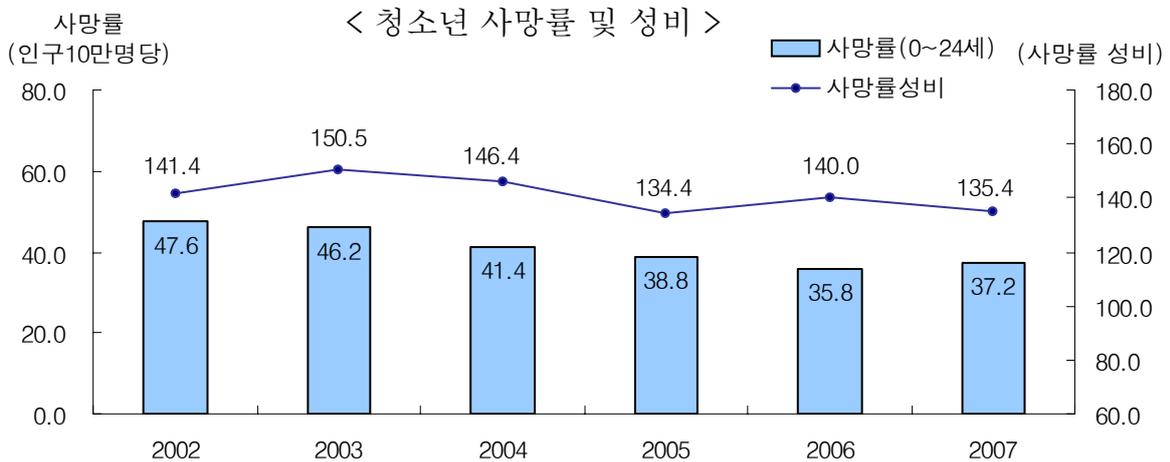
주 : 1)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내 취업소개기관, 직업(취업)박람회 등

IV. 보건

4-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2007년 0~24세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명당 37.2명으로 전년에 비해 1.4명 증가

- 2007년 0~24세 사망률은 10만명당 37.2명으로 전년(2006년)도 35.8명에 비해 1.4명 증가
 - 사망률 성비는 2007년 135.4로 전년에 비해 4.6p 감소
- 2007년 청소년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세의 사망률이 380.6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20~24세가 47.4명으로 나타남



< 청소년(0~24세) 사망자수 및 사망률 >

(단위 : 명)

	계		남자		여자		사망률 성 비 ¹⁾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2002	8,215	47.6	4,990	55.3	3,225	39.1	141.4
2006	5,690	35.8	3,449	41.4	2,241	29.6	140.0
2007	5,778	37.2	3,457	42.5	2,321	31.4	135.4
0세	1,703	380.6	934	404.3	769	355.2	113.8
1~ 4세	502	26.9	284	29.3	218	24.3	120.6
5~ 9세	438	14.4	256	16.1	182	12.5	128.8
10~14세	470	13.3	294	15.7	176	10.6	148.1
15~19세	1,058	32.4	745	43.3	313	20.3	213.3
20~24세	1,607	47.4	944	53.7	663	40.6	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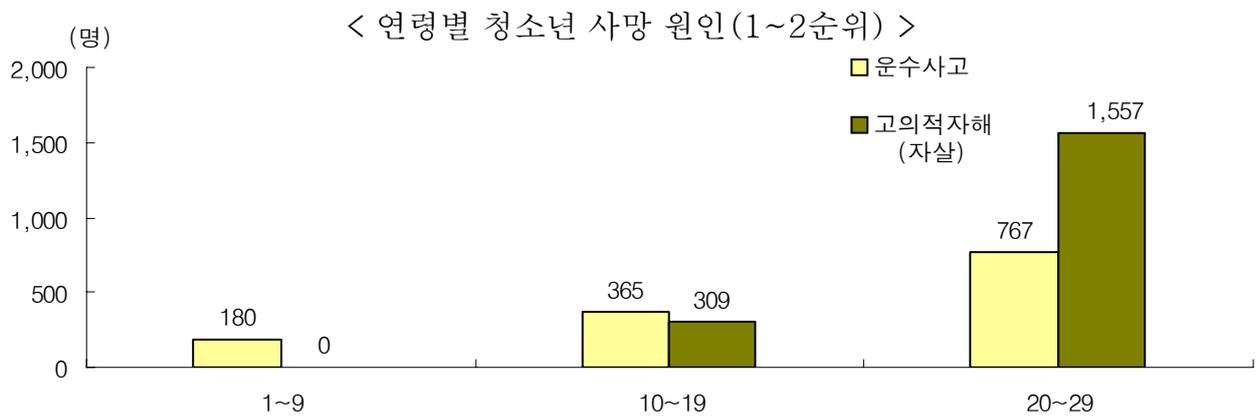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사망률 성비 = (남자사망률/여자사망률) × 100

4-2. 청소년 사망 원인

2007년 19세이하 청소년 사망원인 1순위는 “운수사고”이며, 20~29세는 고의적자해(자살) 임

- 2007년 19세이하(1~9, 10~19세)청소년 사망원인 1순위는 “운수사고”이며, 20~29세는 고의적자해(자살)이 1순위임
- 19세이하 청소년의 연령대별 사망순위는 1~9세는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선천기형 순이며, 10~19세는 운수사고, 고의적자해(자살), 악성신생물(암) 순임
- 남·녀별로는 1~9세, 10~19세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운수사고” 사망자가 많았으며, 20~29세는 남·녀 모두 “고의적자해(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연령별 청소년 사망원인(2007년) 〉

(단위 : 10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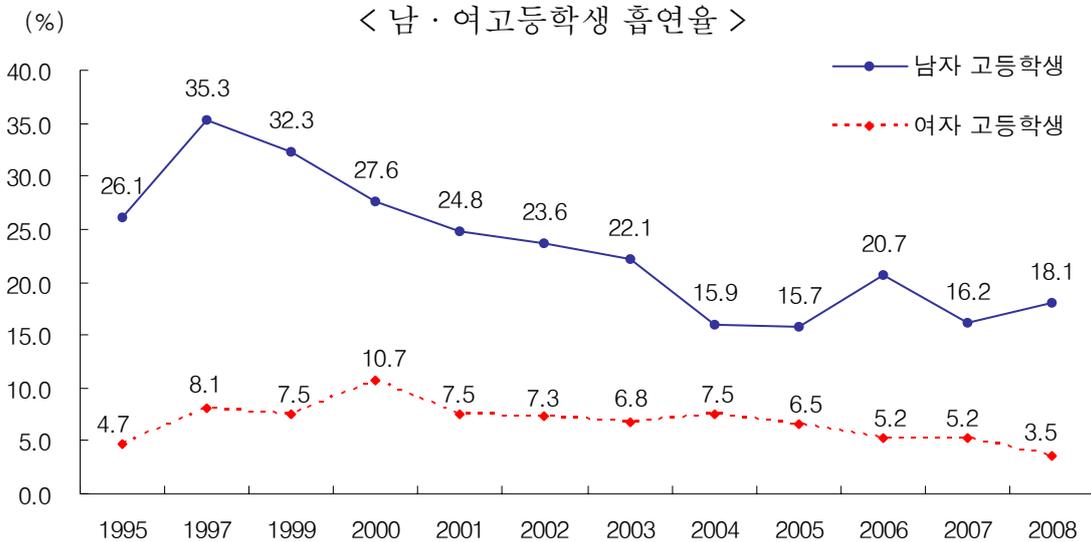
	1위	2위	3위	4위	5위
1~9세 사망률	운수사고 3.7	악성신생물(암) 3.6	선천기형 1.3	익사사고 1.1	추락사고 1.0
남 자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익사사고	선천기형	추락사고
여 자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선천기형	추락사고	타살
10~19세 사망률	운수사고 5.4	고의적자해(자살) 4.6	악성신생물(암) 3.6	익사사고 0.9	심장질환 0.7
남 자	운수사고	고의적자해(자살)	악성신생물(암)	익사사고	심장질환
여 자	고의적자해(자살)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심장질환	타살
20~29세 사망률	고의적자해(자살) 21.0	운수사고 10.4	악성신생물(암) 5.0	심장질환 2.0	익사사고 1.2
남 자	고의적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익사사고
여 자	고의적자해(자살)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심장질환	타살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4-3. 청소년의 흡연율

2008년 남학생 흡연율은 전년에 비해 높고 여학생은 줄어듦

- 2008년 남자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각각 5.7%, 18.1%로 전년에 비해 각각 0.9%p, 1.9%p 늘었음
- 반면 여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0.4%p, 1.7%p 줄었음
-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7년 35.3%를 정점으로 2008년에는 18.1%, 여자 고등학생도 2000년 10.7%에서 2008년에는 3.5%로 감소



< 중·고등학생 흡연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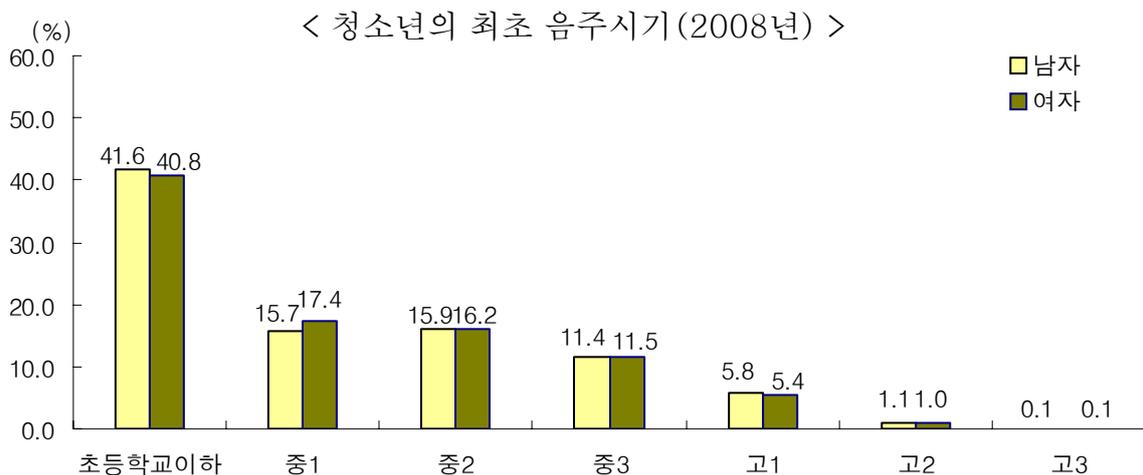
		중학교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자	2005	4.2	3.8	3.5	5.7	15.7	12.6	22.1	13.2
	2006	5.3	3.1	4.9	8.2	20.7	18.1	21.9	22.4
	2007	4.8	2.1	3.4	9.4	16.2	19.1	15.3	13.3
	2008	5.7	4.2	4.7	8.1	18.1	15.9	21.0	17.8
여 자	2005	3.3	2.9	2.7	3.5	6.5	5.2	8.1	5.9
	2006	3.3	1.9	3.2	4.7	5.2	6.3	4.7	4.8
	2007	2.6	1.8	3.9	2.5	5.2	6.6	3.9	5.4
	2008	2.2	1.9	1.4	3.2	3.5	3.3	4.5	2.6

자료 :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 각년도

4-4. 청소년의 최초 음주시기

청소년 음주 경험자(63.3%)중 85.2%가 중학교 이전에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

- 2008년 청소년 음주 경험자의 최초 음주시기는 초등학교 이하가 41.1%, 중학교가 44.1%, 고등학교가 6.7%로 나타남
-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한 평균나이는 13.2세이며 남자가 13.0세, 여자가 13.4세로 남학생의 연령이 약간 낮게 나타남
- 지역별 최초 음주경험의 평균나이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13.2세로 동일하게 나타남



< 청소년의 최초 음주시기(2008년) >

(단위 : %, 세)

	계 ¹⁾	초등학교 이하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나이
< 전 체 >	100.0	41.1	16.5	16.1	11.5	5.6	1.0	0.1	13.2
< 성 별 >									
남 자	100.0	41.6	15.7	15.9	11.4	5.8	1.1	0.1	13.0
여 자	100.0	40.8	17.4	16.2	11.5	5.4	1.0	0.1	13.4
< 지 역 >									
대 도시	100.0	41.9	16.3	15.7	11.8	5.6	1.1	0.1	13.2
중소도시	100.0	40.1	17.1	16.6	11.3	5.7	1.0	0.1	13.2
읍 면	100.0	42.5	15.7	15.8	11.1	5.8	1.2	0.1	13.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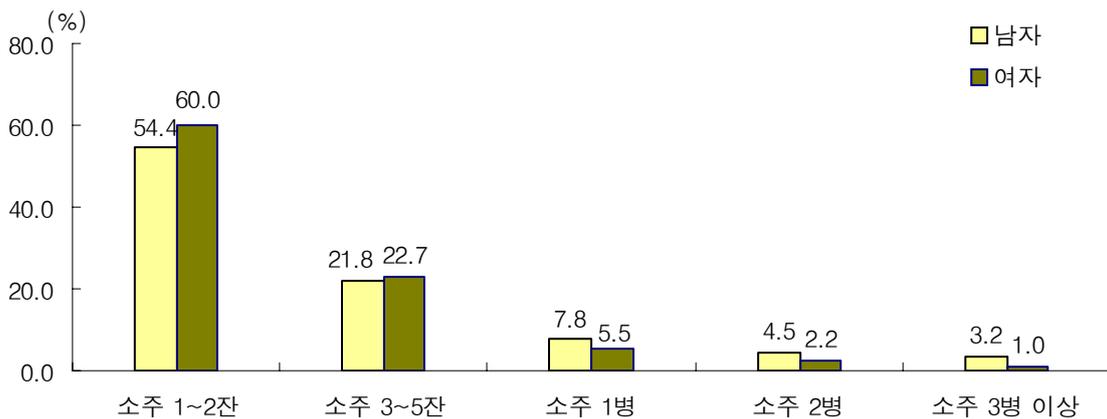
주 : 1) 한 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전체의 63.3%)

4-5. 청소년의 음주량

2008년 청소년 음주자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이 가장 많음

- 청소년 음주 경험자(63.3%)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이 57.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주 3~5잔이 22.2%, 소주 1병이 6.7%, 소주 2병 이상이 5.5%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학생은 소주 1병 이상 마시는 비율이 15.5%로 여학생의 8.7%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소주 1병 이상 마시는 비율이 21.4%로 중학생(4.6%)이나 일반계 고등학생(17.1%)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의 1회 평균 음주량(2008년) >



< 청소년의 1회 평균 음주량(2008년) >

(단위 : %)

	계 ¹⁾	소주 1~2잔	소주 3~5잔	소주 1병	소주 2병	소주 3병 이상	무응답
< 전체 >	100.0	57.0	22.2	6.7	3.4	2.1	8.5
< 성별 >							
남자	100.0	54.4	21.8	7.8	4.5	3.2	8.3
여자	100.0	60.0	22.7	5.5	2.2	1.0	8.6
< 교급 >							
중학교	100.0	68.1	13.6	2.4	1.3	0.9	13.7
일반계고교	100.0	50.6	27.5	9.8	4.4	2.9	4.9
전문계고교	100.0	43.0	32.6	10.7	7.0	3.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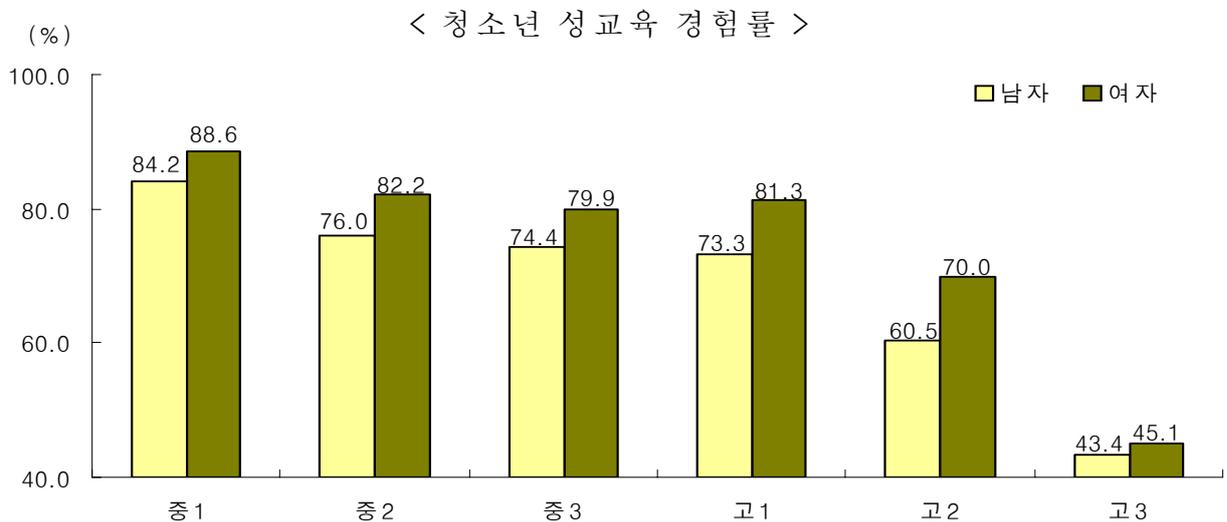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8년

주 : 1) 한 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임(전체의 63.3%)

4-6.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

연간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은 72.2%

- 2007년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은 72.2%로, 여자가 남자보다 5.8% 높게 나타남
- 학년별로 중학교 1학년이 86.3%로 가장 높고, 중3이 77.0%, 고2가 65.0%, 고3이 44.2%로 가장 낮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교육 경험률은 낮아짐
-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80.7%, 고등학교는 62.8%로, 고등학생의 성교육 경험률이 중학생보다 17.9% 낮게 나타났음



< 청소년 연간 성교육 경험률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72.2	69.5	75.3
중1	86.3	84.2	88.6
중2	78.9	76.0	82.2
중3	77.0	74.4	79.9
고1	77.1	73.3	81.3
고2	65.0	60.5	70.0
고3	44.2	43.4	45.1
중 학교	80.7	78.2	83.5
고등학교	62.8	59.8	66.2
일반계고	60.8	57.5	64.5
전문계고	68.1	65.6	71.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V. 복지

5-1.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2008년 요보호아동 발생유형은 “부모이혼 등”이 31.7%로 가장 많음

- 2008년 발생한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9,284명이었으며, 발생유형별로는 ‘부모이혼 등’ 2,943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모 아동’ 2,349명, ‘빈곤·실직’ 1,036명 순으로 나타남
- 2008년 요보호 아동의 보호내용을 보면 각종 시설보호가 53.5%, 가정보호가 46.5%를 차지하였음
 - 시설보호에서는 ‘양육 시설 등’이 32.3%, 가정보호에서는 ‘위탁보호’가 30.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보호아동¹⁾ 발생유형 및 보호내용 >

(단위 : 명, %)

	계	발 생 유 형								
		기 아	미혼모 아동	미 아	비행, 가출등	학대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등
2006	9,034	230	3,022	55	802					4,925 ²⁾
2007	8,861	305	2,417	37	748					5,354 ²⁾
2008	9,284 (100.0)	202 (2.2)	2,349 (25.3)	151 (1.6)	706 (7.6)	891 (9.6)	1,036 (11.2)	732 (7.9)	274 (3.0)	2,943 (31.7)

	계	보 호 내 용								
		시 설 보 호					가 정 보 호			
		계	양육 시설 등	일시보호 시설	장애아동 시설	공동생활 가정	계	위탁 보호	입양	소년소녀 가장책정
2008	9,284 (100.0)	4,964 (53.5)	2,997 (32.3)	1,261 (13.6)	39 (0.4)	667 (7.2)	4,320 (46.5)	2,838 (30.6)	1,304 (14.0)	178 (1.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요보호아동 연령은 만 18세 미만임

2) 2006년, 2007년 = 학대+빈곤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등

5-2. 청소년 상담 현황

2008년 청소년 연간 상담자수는 전년에 비해 48.1% 증가

- 2008년 청소년 상담자수는 전년보다 48.1% 증가한 4,006,993명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804,135명으로 전년에 비해 85.9% 증가
 - 상담대상자 중 청소년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29.7%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1.5%, 초등학생 20.1% 순이었음
-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일탈/비행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진로 17.9%, 대인관계 15.0%, 단순정보제공 9.8%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상담 현황 >

(단위 : 개소, 명, %)

	상담센터 (전국)	상담대상자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¹⁾
2006	142	1,560,607	244,957	508,828	435,736	46,553	324,533
2007	-	2,705,526	432,586	860,359	668,843	80,152	663,586
2008	147	4,006,993	804,135	1,191,209	859,855	113,828	1,037,966
증감률 ²⁾	-	48.1	85.9	38.5	28.6	42.0	56.4

	상담내용별											
	계	가정	일탈/ 비행	학업/ 진로	성	대인 관계	성격	정신 건강	생활 습관 태도	활동	컴퓨터 / 인터넷	단순 정보 제공
2006	100.0	7.2	12.6	26.9	5.1	18.2	12.9	2.8	8.9	2.5	-	2.9
2007	100.0	6.1	15.0	23.0	4.0	13.5	7.8	3.3	0.8	7.6	6.9	11.9
2008	100.0	6.8	19.2	17.9	4.4	15.0	7.1	4.6	0.9	7.1	7.1	9.8
증감 ³⁾	-	0.7	4.2	-5.1	0.4	1.5	-0.7	1.3	0.1	-0.5	0.2	-2.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백서」 각년도

주 : 1) 학부모 및 지도자, 학업중단 청소년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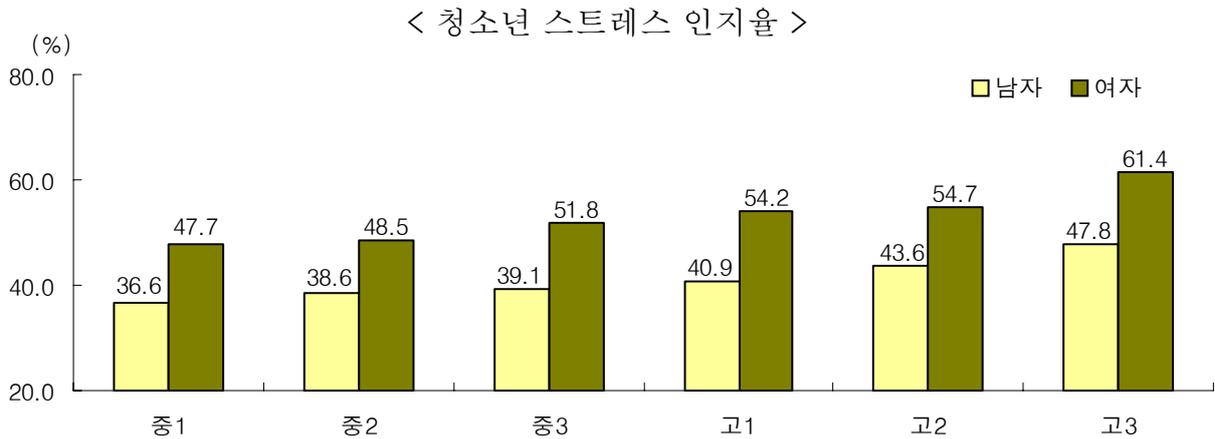
2)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률

3)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

5-3. 청소년의 스트레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¹⁾은 46.5%임

- 학년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증가
 - 중학교 1학년은 41.7%, 고등학교 3학년은 54.2%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은 증가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인지율이 각 학년별로 10% 이상 높게 나타남
 -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43.4%, 49.9%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으며, 특히 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46.5	40.9	52.8
중1	41.7	36.6	47.7
중2	43.2	38.6	48.5
중3	45.1	39.1	51.8
고1	47.2	40.9	54.2
고2	48.9	43.6	54.7
고3	54.2	47.8	61.4
중 학교	43.4	38.1	49.4
고등학교	49.9	44.0	56.6
일반계고	49.8	44.5	55.5
전문계고	50.4	42.4	59.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주 : 1) 스트레스 인지율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VI. 교통과 정보화

6-1.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평균 이용시간

청소년(10대)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0.4시간

-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10대)이 85.5%임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78.9%, 중학생 87.4%, 고등학생 87.1%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88.5%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10대)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0.4시간임
 - 초등학생은 8.9시간, 중학생은 9.5시간, 고등학생은 13.4시간, 대학생은 17.7시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학생(10.9시간)이 여학생(9.9시간)보다 1시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 빈도 >

(단위 : %)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 10대 >	85.5	14.3	0.1	-
남자	84.7	15.1	0.2	-
여자	86.4	13.5	0.1	-
초등학생	78.9	20.8	0.3	0.1
중 학생	87.4	12.4	0.2	-
고등학생	87.1	12.8	0.1	-
대 학생	88.5	11.5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 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

(단위 : %, 시간)

	1시간 미만	1-3 시간	3-7 시간	7-14 시간	14-21 시간	21-35 시간	35시간 이상	주평균 (시간)
< 10대 >	1.8	9.3	16.2	37.1	22.9	10.1	2.7	10.4
남자	1.3	8.5	15.7	36.1	24.2	11.3	3.0	10.9
여자	2.3	10.2	16.7	38.2	21.5	8.7	2.3	9.9
초등학생	2.1	8.5	21.7	41.7	16.3	8.7	1.1	8.9
중 학생	1.7	11.2	17.5	35.7	25.0	7.9	1.0	9.5
고등학생	1.5	3.8	9.4	35.8	28.3	15.3	5.9	13.4
대 학생	0.4	0.8	1.9	23.9	38.5	24.9	9.6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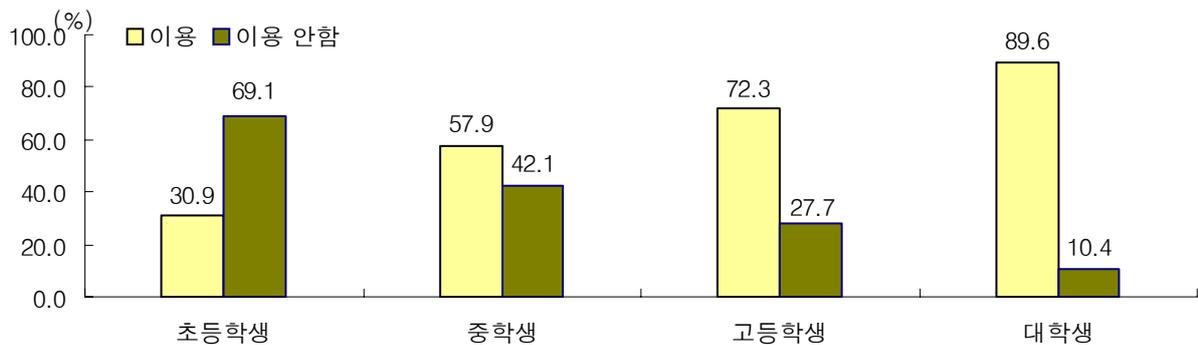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6-2. 인터넷 쇼핑 이용여부 및 월평균 구매 비용

청소년(12~19세)의 61.0%가 인터넷 쇼핑 이용

-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증가함
 - 12~19세의 이용률은 61.0%, 20대의 이용률은 87.3%이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대학생이 89.6%로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의 월평균 인터넷 쇼핑 구매 비용은 12~19세가 27,400원이며, 20대가 42,800원으로 나타남
 - 연령별, 학교급별 청소년의 월평균 인터넷 쇼핑 구매 비용은 3~5만원대가 가장 많음

< 최근 1년 이내 인터넷 쇼핑 이용여부(2008년) >



< 인터넷 쇼핑 이용 여부 및 월평균 구매 비용 >

(단위 :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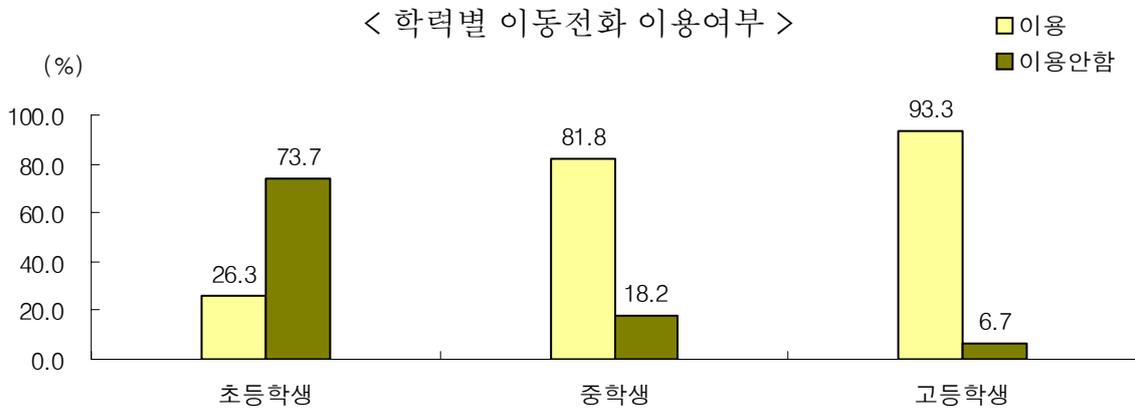
	이용		이용 안함						월평균 (천원)
< 12~19세 >	61.0		39.0						
< 20 대 >	87.3		12.7						
초등학생	30.9		69.1						
중 학생	57.9		42.1						
고등학생	72.3		27.7						
대 학생	89.6		10.4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5만원	5-10만원	10-30만원	30만원 이상		
< 12~19세 >	22.2	14.4	9.2	45.7	6.4	2.0	0.1	27.4	
< 20 대 >	10.6	14.6	14.1	30.2	19.1	10.4	1.0	42.8	
초등학생	10.0	2.7	0.4	86.8	0.1	-	-	35.4	
중 학생	27.8	11.8	7.4	48.3	3.8	0.9	0.1	25.7	
고등학생	21.8	19.4	12.0	37.3	7.0	2.6	-	25.6	
대 학생	12.7	15.9	14.9	33.6	16.3	6.4	0.3	34.6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6-3. 이동전화 이용여부 및 용도

10대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이동전화 이용

- 2008년 10대 청소년의 71.3%가 이동전화를 이용함
 -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26.3%, 중학생 81.8%, 고등학생 93.3%가 이동전화를 이용함
- 청소년(10대)의 이동전화 이용용도는 문자 송수신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다음으로 벨소리 다운로드, 음악다운로드, 사진 등 동영상 수신 순으로 나타남



< 이동전화 이용여부 및 용도 >

(단위 : %)

	이동전화 이용 여부								
	계 ¹⁾	이용			이용안함				
3-9세	100.0	7.6			92.4				
10대	100.0	71.3			28.7				
20대	100.0	98.4			1.6				
초등학교	100.0	26.3			73.7				
중 학교	100.0	81.8			18.2				
고등학교	100.0	93.3			6.7				
이동전화 이용용도 (복수응답)									
	이용자	문자 송수신	벨소리 다운로드	정보검색	사진, 동영상수신	음악 다운로드	게임 다운로드	동영상 다운로드	상품결제
3-9세	100.0	98.3	45.2	3.7	14.9	3.6	6.0	1.4	2.0
10대	100.0	100.0	99.1	9.5	41.9	56.1	33.4	19.1	28.7
20대	100.0	100.0	99.6	10.5	42.9	32.5	31.9	11.8	34.7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주 : 1) 최근 1개월 이내 이동전화 이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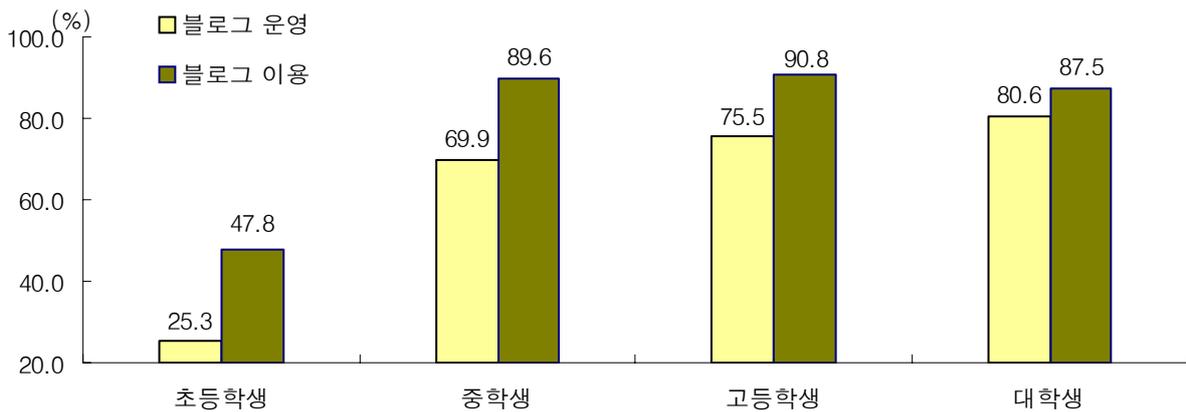
VII. 문화와 여가

7-1. 블로그¹⁾ 운영 및 이용 여부

19세이하 청소년의 3명중 2명이 블로그 이용

- 6~19세 청소년의 블로그 운영률은 48.8%, 20대의 블로그 운영률은 74.4%임
 - 남성보다 여성의 운영률이 연령대별로 각각 6%, 3%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운영률은 증가하며, 대학생의 경우 80.6%로 가장 높음
- 6~19세 청소년의 블로그 이용률은 67%, 20대의 블로그 이용률은 82%임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블로그 이용률이 90.8%로 가장 높음

< 블로그 운영 및 이용 여부(2008년) >



< 블로그 운영 및 이용 여부(2008년) >

(단위 : %)

	블로그 운영 여부		블로그 이용 여부	
	운영 ²⁾	운영 안함	이용 ³⁾	이용 안함
< 6-19세 >	48.8	51.2	67.0	33.0
남자	46.0	54.0	65.7	34.3
여자	52.0	48.0	68.5	31.5
< 20대 >	74.4	25.6	82.0	18.0
남자	72.9	27.1	81.6	18.4
여자	75.9	24.1	82.5	17.5
초등학생	25.3	74.7	47.8	52.2
중학생	69.9	30.1	89.6	10.4
고등학생	75.5	24.5	90.8	9.2
대학생	80.6	19.4	87.5	12.5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주 : 1) 블로그 :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

2) 본인 블로그 운영률, 3) 타인 블로그 이용률

7-2. 청소년 영화관람 현황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이 영화를 많이 봄

- 2007년 청소년의 영화관람 편수는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을수록 영화를 많이 봤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영화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남
 - 전년에 비해 청소년의 영화 관람 편수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19~23세 여성의 관람 편수가 18.3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의 영화관람 시 동반자는 친구, 연인 순으로 나타남
 - 15~18세의 경우 친구와의 관람이 73.3%로 가장 높으며, 19~23세의 경우 친구가 50.0%, 연인이 39.1%로 나타남

< 영화 관람 편수 >

(단위 : 편)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자(전연령)	5.0	6.0	5.4	8.2	8.4	11.4
15~18세	5.4	7.4	5.5	5.9	6.6	10.8
19~23세	9.9	9.7	10.3	10.4	8.6	14.9
여자(전연령)	5.4	5.8	5.8	7.9	10.1	13.8
15~18세	6.3	7.1	6.8	7.9	8.6	14.5
19~23세	12.1	11.1	12.2	12.9	12.5	18.3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07 영화소비자조사」

< 영화 관람시 동반자 >

(단위 : %)

	친구	연인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배우자	혼자
남자(전연령)	23.5	30.4	1.1	1.8	0.4	35.4	4.6
여자(전연령)	39.7	17.9	1.4	3.1	0.6	28.0	4.1
15~18세(남.여)	73.3	13.3	5.7	2.9	0.5	0.0	2.4
19~23세(남.여)	50.0	39.1	2.5	2.2	0.0	1.1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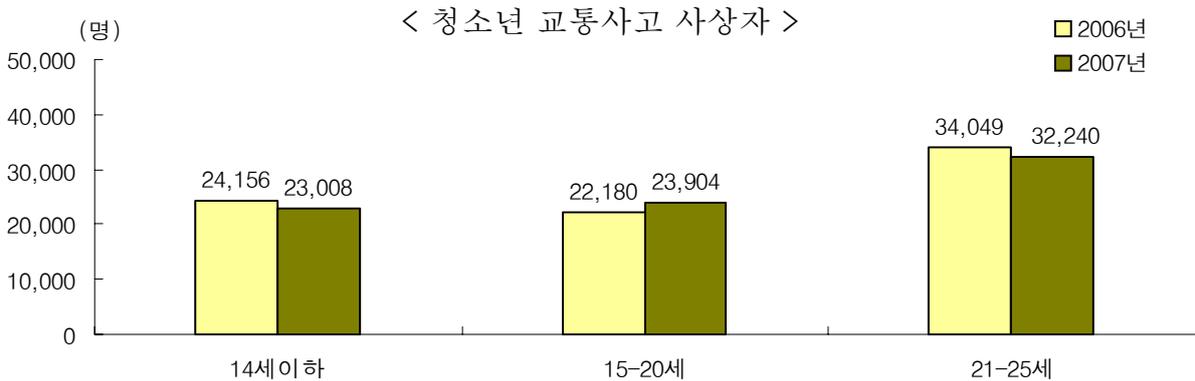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07 영화소비자조사」

VIII. 안 전

8-1. 청소년 교통사고

200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중 25세 이하가 23.1%를 차지

- 2007년 교통사고로 인한 25세 이하 사상자는 79,15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자 342,072명의 23.1%를 차지함
 -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1.6배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음
 -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상자가 많으며, 특히 21~25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06년(80,385명)과 비교하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는 1.5% 감소
 - 연령별로는 6세 이하가 11.6%, 21~25세는 5.3%, 7~14세는 0.7% 감소한 반면, 15~20세는 7.8% 증가하였음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

(단위 : 명, %)

	2006년	2007년	비율 (%)	
			구성비	증감률 ¹⁾
전 체(전 연령)	346,556	342,072	100.0	-1.3
남여계(25세 이하)	80,385 ²⁾	79,152 ³⁾	23.1	-1.5
남자(25세 이하)	48,856	49,276	14.4	0.9
여자(25세 이하)	31,525	29,874	8.7	-5.2
6세 이하	8,915	7,881	2.3	-11.6
7~14세	15,241	15,127	4.4	-0.7
15~20세	22,180	23,904	7.0	7.8
21~25세	34,049 ³⁾	32,240	9.4	-5.3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주 : 1) 2006년 대비 2007년의 증감비율임

2) 성별 미상자 4명 포함, 3) 성별 미상자 2명 포함

8-2. 아동학대 현황

2007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추세

- 2007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9,478건이고, 그 중 아동학대 사례는 5,581건으로 나타남
 - 발생유형별로는 방임이 2,107건으로 가장 높으며, 중복학대 유형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는 정서학대(589건), 신체학대(473건), 성학대(266건), 유기(59건)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아동을 성별로 보면 2006년까지는 남자가 많았으나, 2007년은 여자가 많음
- 2002년(5년전)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2.3배가량 증가(4,111건에서 9,478건)하였고, 아동학대 사례도 2.3배가량 증가(2,478건에서 5,581건)하였음

< 아동학대 상담현황 >

(단위 : 건)

	아동학대 신고건수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 상담	계	아동학대사례		잠재 위험사례	일반 사례
					응급아동 학대사례	단순아동 학대사례		
2002	4,111	2,946	1,165	2,946	310	2,168	298	170
2003	4,983	3,536	1,447	3,536	411	2,510	343	272
2004	6,998	4,880	2,118	4,880	592	3,299	434	555
2005	8,000	5,761	2,239	5,761	605	4,028	427	701
2006	8,903	6,452	2,451	6,452	591	4,611	397	853
2007	9,478	7,083	2,395	7,083	575	5,006	468	1,034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 아동학대 발생유형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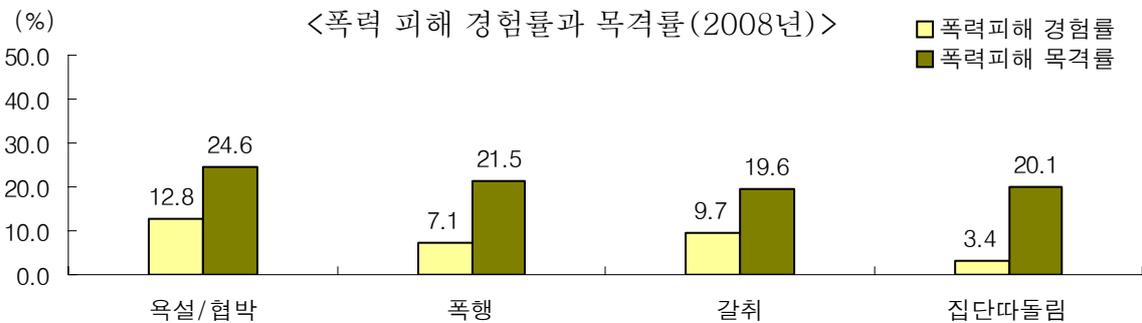
	계	피해아동 성별		학대유형					
		남자	여자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 학대
2002	2,478	1,332	1,146	254	184	65	814	212	949
2003	2,921	1,461	1,460	347	207	134	965	113	1,155
2004	3,891	1,964	1,927	364	350	177	1,367	125	1,508
2005	4,633	2,353	2,280	423	512	206	1,635	147	1,710
2006	5,202	2,641	2,561	439	604	249	2,035	76	1,799
2007	5,581	2,780	2,801	473	589	266	2,107	59	2,08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8-3.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

중·고등학생은 8명 중 1명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

- 지난 1년간 급우나 또래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중·고등학생은 12.9%로, 8명중 1명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
 - 폭력 피해 후 친구(3.5%), 가족(2.9%), 선생님(2.1%) 순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며, 3.2%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로 급우·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은 욕설/협박이 12.8%, 금품갈취가 9.7%, 폭행이 7.1%, 집단따돌림이 3.4%순으로 나타났음



< 지난 1년간 급우나 또래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과 목격(2008년) >

(단위 : %)

	경험률	1년간 경험 횟수				전혀없다	무응답	주변의 목격 경험 ¹⁾
		1년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주3회 이상			
욕설 / 협박	12.8	7.4	2.3	1.2	1.8	87.1	0.1	24.6
폭행	7.1	4.3	1.1	0.7	1.0	92.7	0.2	21.5
금품갈취	9.7	6.6	1.9	0.6	0.5	90.1	0.2	19.6
집단 따돌림	3.4	1.8	0.5	0.2	0.8	96.4	0.2	20.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정착 종합실태조사」 2008년

주 : 1) 본인의 경험이 아닌 주변에서 폭력 피해를 목격한 경험률임

< 폭력을 당한 후 알린 사람(2008년) >

(단위 : %)

	계	피해경험 없다	폭력피해를 당한 후 알린 사람 ¹⁾							
			알리지 않음	가족	선생님	친구	상담실/전문기관	경찰 신고	기타	무응답
전체	100.0	87.1	3.2	2.9	2.1	3.5	0.2	0.5	0.4	2.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정착 종합실태조사」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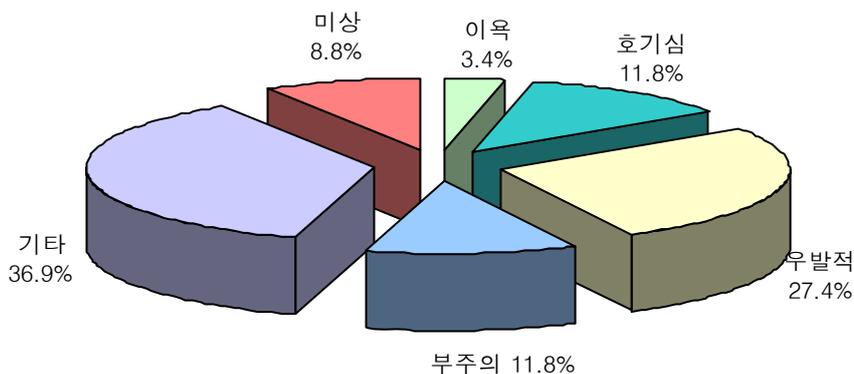
주 : 1) 피해경험 후 알린사람은 복수응답 임

8-4.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학생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27.4%)’ 범행이 가장 많음

- 2007년 학생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 27.4%, ‘호기심’, ‘부주의’가 각각 11.8%, ‘이욕’ 3.4%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에 비해 이욕(-0.1%p), 호기심(-1.2%p), 부주의(-0.3%p)는 감소한 반면, 우발적(0.1%p), 기타(0.5%p)는 증가
- 형법범의 경우는 ‘우발적’ 동기 39.0%, ‘호기심’ 15.4%, ‘이욕’ 5.0% 순으로 나타났음

<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2007년) >



<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

(단위 : %)

	계	이 욕 ²⁾	호기심	우발적	부주의	기 타 ³⁾	미 상
2005	100.0	3.7	10.9	29.7	12.3	36.5	6.9
2006	100.0	3.5	13.0	27.3	12.1	36.4	7.7
2007	100.0	3.4	11.8	27.4	11.8	36.9	8.8
형법범	100.0	5.0	15.4	39.0	0.7	32.5	7.5
특별법범 ¹⁾	100.0	1.0	6.3	9.7	28.5	43.6	10.8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주 : 1)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병역법, 도로 교통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됨

2) 이욕 : 생활비 마련, 유흥비 마련, 도박비 마련, 허영 및 사치심, 치부, 기타 포함

3) 기타 :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유혹, 현실불만, 기타 포함